

수돗물서 수도행정 불신만 ‘칼칼’

최근 강정정수장 연관 4개 학교서 깔따구유충 유출 수돗물 관리 허점 재확인... 행정은 임시방편 급급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강정정수장에서의 유충 유출사고를 겪은 서귀포시 수돗물 공급체계가 다시한번 흔들리며 상수도 관리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 학생들이 먹고 마시는 급식과 식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여러 차례 발견되면서 긴급 조치가 이뤄

졌다.

지난달 30일까지 수돗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교육지원청에 접수한 곳은 초등 4개 학교다.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강정정수장에서 발생한 유충 사태 이후, 필터를 사용하면서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강정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전체 14개 학교의 수질에 대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수질검사를 오늘(5일) 다시 의뢰했다”며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

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접수된 학교 대부분은 상수도관 끝지역 등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 침전현상으로 인해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학교에 공급하는 관로에 대해 물빠기 작업과 주변 전선 이토관을 시설했고, 앞으로 중간필터 설치 및 노후관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선 학교에서 이물질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행정지원에서의 대응은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지면서 문제다. 특히 해당 이물질에 대한 전문가에 시료 분석조차 의뢰를 하지 않은 채 물빠

기 작업이나 중간필터 설치 등으로 대처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수질관리 전문가는 “이물질이 흙이나 녹이 아닌 검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로에서 벗겨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압이나 물량 변화, 공사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여러 학교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서귀포시 동지역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수개월간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백금기자

개천철 연휴 방역수칙 위반 9곳 적발

음식 섭취 노래방에 과태료

개천철 연휴 기간 제주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중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을, 14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평평가 통과 규탄”

꽃자왈사람들 어제 논평

(사)꽃자왈사람들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의 조건부 동의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꽃자왈사람들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 1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꽃자왈이 개발로 훼손돼 보전은 후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원형 보존하겠다는 사업자는 입장을 바꾸고 일부 이식하는 것을 보전방안으로 제출했다”며 “보전 기

준인 서식지로부터 반경 35m 이상 원형보전을 계획했지만, 그 기준을 완화해 반경 10m의 보전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꽃자왈사람들은 “원형보전이 아닌 이식을 보전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통과시킨 심의위원회는 환경보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꽃자왈사람들은 “이제 남은 절차는 도의회 등의 절차와 도지사 승인”이라며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지는 개발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4·3전문강사 육성 박차 도교육청, 심화과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교원들을 ‘4·3유적지 해설 및 증언 채록’ 전문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2월까지 도내 교원 18명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전문가 연수는 지난 7월 말 4·3평화·인권교육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 과정이다. 지난 4일 제주시 일원에서 실시된 첫 연수는 이석문 교육감의 특강과 증언 채록 방법, 4·3 증언 채록, 제주시지역 4·3유적지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오는 11월 6일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지역 일원, 12월 4일은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일원에서 4·3유적지 답사와 4·3증언 채록 등이 진행된다.

연수를 마친 교원들은 앞으로 찾아가는 학교 4·3평화·인권교육 및 도의 4·3교육, 전국교사 4·3 연수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교원들은 4·3평화·인권교육을 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4·3전문 강사로도 훌륭히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천고마바... 풀 뜯는 방목마을 5일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에서 방목중인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들이 맑은 가을하늘 아래서 한기롭게 풀을 뜯고 있다. 이상규기자

도내 학교 전면 등교... 기대 반 우려 반

4개교 부분 원격수업... 16~17세 백신 접종 예약 시작

제주지역 모든 학교가 5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교육회복을 위한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유의 등교 연기와 들쭉날쭉 등교수업 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학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돌파 감염’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가운뎃 학교 방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전체

등교수업이 재개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등으로 4개교(오현고, 남녕고, 영평초, 서귀중앙초)는 이날 학년·학급별 부분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별이 아닌 학교별 원격수업 전환(전체 또는 부분(학년, 학급))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부터 고1·2학년인 16~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했다. 예약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12~15세는 오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도교육청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생의 접종 여부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거나 미접종시 교내활동상 불이익, 접종률 통계 생산 등을 지양하도록 했다.

한편 16~17세 백신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12~15세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국토교통부가 피고인이면 법정구속감”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성명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며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지 7개월여 만에,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한지 70여일 만에 내놓은 국토부의 결정은 어처구니 없게도 또 다시 용역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가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을 받은 항목의 반려 사유 해소 가능성을 용역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는 국토부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후 환경부의 벌금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기는커녕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었다면 법정구속을 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더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당장 접어라”고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2021 제주국제 감귤박람회

2021. 11. 5(금) - 14(일) (10일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박람회

장소 3D디지털 박람회장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일원

박람회 일정

| | | |
|-------------------|--|--|
| 공식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 폐막식 | 일시 : 2021년 11. 05.(금) 14:00 ~ 일시 : 2021년 11. 14.(일) |
| 비즈니스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상담회 •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 • 감귤 수출국 현지 마케팅(미국·러시아·대만·UAE) | 일시 : 2021년 11. 11.(목) ~ 12.(금) 일시 : 2021년 11. 08.(월) ~ 9.(화) 일시 : 2021년 10월 ~ 11월 |
| 학술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국제 감귤 심포지엄 • 온라인 강연회 • 합동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 9.(화) ~ 10.(수) 일시 : 2021년 11. 11.(목) ~ 12.(금) 일시 : 2021년 11. 11.(목) |
| 기념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2021년 11. 11.(목) |
| 전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관, 우수감귤전시관, 농기계관, 농자재관, 미래농업관 | |
| 문화/체험/경연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빛 가요제(결선) • 제주감귤 초단편 국제 영화제 • 감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디카시 공모전 • 온라인 감귤 먹방 대회 • 감귤따기 체험 • 연날리기 체험 | 일시 : 2021년 11. 13.(토) |

방송 LIVE · 라이브 커머스 · 유튜브 실시간 감귤경매 · 토크콘서트 · 사연 진품명품 · 감귤 요리와 차

문의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064-762-309 홈페이지 www.jicexpo.com